

[지문 실전독해]

(가)

❶ 1문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소재를 찾는다. 여러분께서 잘 모르거나 낯선 단어를 발견하면 그 단어가 핵심소재일 확률이 높다.

[적용] 유서(類書)라는 낯선 단어 심지어 한자어로 병기되어 있다. 핵심소재일 확률이 높다. 만약 아니라면 지문을 읽어 나가며 재설정한다.

❷ 보조사 <는> 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다. 이는 '비교' 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적용] '중국에서<는>' 표현을 통하여 중국과 대조되는 대상이 뒤에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지문에서는 '조선' 이 비교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중국 <-> 조선 대립 구도를 잡고 이들 간 유서 편찬 차이점을 찾고 밑줄을 긋는다.

[참고1] 인문 지문에서 '중국' 표현이 등장하면 출제자는 주로 대조 대상을 '조선' 으로 잡는다. 중국을 내용상 먼저 배치하고 조선을 뒤에 배치하는 이유는 조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원칙상 강조하고 싶은 것을 뒤에 배치한다.

[참고2] ❶❷를 종합하여 중국과 조선의 '유서' 비교가 현재까지의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허나 주제는 문단이 바뀌며 변화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둔다.

[참고3] 차이점의 경우, 일반 특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 대상 사이에서 정확히 반대되는 특징을 찾는 것이다.

❸ 문단이 바뀌면 항상 첫 번째 줄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주제 변화' 는 첫 번째 문장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적용] 3문단 첫 번째 줄을 확인하니 유서편찬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❶❷에서 파악한 '중국과 조선 유서 비교' 에서 '유서 편찬 변화' 로 주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서 편찬 변화 양상에 밑줄을 긋는다.

[참고] 밑줄은 주제 관련된 부분만 긋는 것이다. 아무 곳에 긋거나 긋지 않는 행위는 '+1수 하겠다' 다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❹ 인문학 지문에서는 주제를 통한 의미 도출까지가 마무리이다.

[적용] 유서 편찬방식의 변화는 주자학 안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자학(중국)에 머물지 않았음이 결국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다.

(나)

❺ 항상 (가)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자. 관계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보려고 의도해야 보인다.

[적용] (가)에서 조선 후기의 유서 편찬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였고 (나) 지문은 '조선 후기 유서가 서학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따라서 (나)는 (가)의 이야기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구체화 지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항상 (가)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자.

[참고2] (가)의 관점을 (나)에서 비판하는 것 등 관계 측면을 활용하여 문제를 만들고 있다.

❻ 같은 범주의 대상이 3개 이상일 때 분류형 지문임을 예측하고 각각의 특징에 밑줄을 긋는다.

[적용] 이수광, 이익, 이규경 세 사람이 등장한다. 조선후기 실학자라는 같은 범주의 대상 3명이 나왔으므로 각자가 유서에 '서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고 밑줄을 긋는다. 세 사람이 한 문단씩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분류형 지문이다.

[문항 출제자의 심리]

1. 정답 ④

(가)의 경우, '유서' 라는 낯선 단어가 나왔기에 우리에게 유서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의 및 특성 등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BY ❶) 또한 인문 지문 특성상 주제를 통한 의미 도출 즉 의의까지 확인해야 만한다(BY ❷)

(나)의 경우, 서학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이수광(17세기)/이익(18세기)/이규경(19세기)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BY ❸)

[BEST질/답 ①]

Q. (가)는 유서의 유형 분류(중국과 조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A. 중국과 조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에 분류는 맞다. 그러나 유서의 유형 분류는 유서의 종류가 나열되어야 한다. 중국과 조선이 유서의 종류는 아니다. '~의'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미를 한 번은 더 고민하도록 하자. 출제자가 오답으로 유인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2. 정답 ⑤

눈에 바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선택지의 구성이다. 선택지도입부를 확인하니 <조선에서는>, <중국에서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지문에서 대조되는 지점이 명확히 인식될 때 출제자는 선택지에서 이러한 구성을 사용할 때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BY ❷) 출제의도는 중국과 조선의 유서 특징 차이점을 명확히 찾았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다.

[참고] 2020.06 평가원 <통화정책/금융정책> 27번 문항

①,② 표시 문항 등

TIP] 중국과 차별되는 조선의 핵심적 특징은 무엇인가.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 하는 것이었다. 개인이 편찬하기에 편찬자가 미상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 시문, 과거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선택지를 만든 것이 ①②③이다. 중국은 조선과 명확히 대조되는 지점이 '국가 주도 대규모 편찬이다'. 이를 ④에서 활용하고 있다. 대조 지점은 반대되는 내용을 찾는 것이지 아무 특징이나 찾는 것이 아니다.

3. 정답 ③

지문 (나)의 주제는 '서학지식' 의 수용 방법이었고 ㉠에서 중국의 서학 연구자들을 참고하여 유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중국화 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 등을 받아들였을 뿐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참고] '-하고자' 라는 표현은 '의도' 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출제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의도 왜곡' 을 활용하여 오답 선지를 만든다. -하고자 라는 표현이 보인다면 의도 왜곡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4. 정답 ②

(나)의 주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주자학에 머물지 않고 서학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수광’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존 지식에 머무는 주자학에 대해 이수광은 새로운 지식과 축적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이 선택지 ②다.

TIP] 이러한 비판/반박 문제는 선택지 모두 다 확인하는 것 보다 주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주관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선택지에서 가장 유사한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5. 정답 ⑤

<보기>에 따르면 『임원경제지』는 주자학을 기반으로 서학 중국 원류설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서학 중국 원류설’ 개념의 정의는 서학 진보성이 가지는 토대가 중국인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중화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선택지 ⑤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참고] [매우중요] 만약 선택지에서 ‘낯선 용어’가 등장할 때 [여기에서는 서학 중국 원류설/ 중화관념]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 정의를 확인해야만 한다. 출제자는 개념의 정의를 활용하여 문제를 제작한다. 나는 주로 지문에서 개념의 정의가 나올 때 □ 표시를 한다. 개념의 정의는 ‘~라 한다’ / ‘~은 ~이다’ 등의 형태로 지문에서 제시된다.

6. 정답 ②

그냥 보너스 문제다. 계몽이 아니라 계승이겠다. 제발 이런 것은 틀리지 말자.